

그리고 이화림도 있었다... 두 번의 거사를 도운 그녀

[3·1운동 백년과 여성]

김구가 조직한 한민애국단 핵심 멤버 이봉창·윤봉길 거사 조력 역할 해내 김구 직접 찾아가 의열 투쟁에 투신 1919년 15살 나이에 3·1운동 참여해

1932년 4월28일. 말쑥하게 차려입은 두 남자가 중국 상해 흥커우 공원에 나타났다. 평범한 젊은 부부처럼 보이는 두 사람은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공원 주변을 맴돌았다. 그들은 산책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시각 흥커우 공원에서 일본인들이 경비를 삼엄했다. 두 남자는 한동안 공원 여기저기를 둘러 보더니 이내 사라졌다.

4월29일 행사 당일. 전날 보였던 그 남자가 또 한 번 흥커우 공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원 앞까지 함께 온 두 사람은 이번엔 따로 움직였다. 남자는 행사장 깊숙이 들어간 반면 여자는 행사장 주변에서 남자의 움직임을 초조한 눈빛으로 살폈다.

축하 행사가 시작될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상 주변에서 굉음이 퍼져나갔고 행사는 이수리장이 됐다. 일

본군 수뇌부 수십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던 그 남자는 곧장 체포됐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본 여자는 곧은 표정으로 빠르게 공원을 빠져나왔다.

“그때 윤봉길이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는데, ‘깡’ 하는 소리와 함께 일본놈들이 마치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지.”(강영심, ‘이화림, 조선의 용대 여성 대원’)

세월이 흘러 어느새 노인이 된 여자는 1932년 4월29일 그때를 이렇게 기억하며 웃었다.

폭탄을 던진 남자가 바로 백범 김구가 조직한 한민애국단의 멤버 윤봉길(1908~1932), 윤봉길과 함께 흥커우 공원을 정찰하고 거사(巨事)를 지켜본 여자가 같은 조직의 이화림(1906~1999)이었다.

이화림은 사실 윤봉길과 거사를 함께 치르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김구가 말했다. 김구는 일본어가 서툰 이화림이 자칫 일본군의 검문에 걸리더라도 하면 거사가 완전히 실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 김구를 찾은 이화림은 그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이화림은 같은 해 1월8일에 있었던 ‘작업’에도 참여했다.

한민애국단의 첫 번째 거사인 히로히토 천황 제거 작전이었다. 이봉창(1901~1932)이 도쿄 사쿠라다문(櫻田門) 앞에서 히로히토를 향해 폭탄을 던졌지만 실패했다. 불발이었다. 이때 이봉창이 폭탄을 숨기고 천황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도운 게 이화림이었다.

가림이 사이에 주머니를 만들어 폭탄을 숨기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주머니를 만든 게 바로 그녀였다. 이후 이어진 윤봉길의 ‘흥커우 공원 투탄’은 한민애국단의 두 번째 작업. 그러니까 이화림은 독립운동 역사에 남을 두 차례 사건 비로 위에 있었던 셈이다. 한민애국단의 핵심 3인방은 이봉창과 윤봉길 그리고 이화림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조력자였다고 해도 윤봉길과 이봉창은 알아도 여성 독립운동가 이화림에 관해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 상황을 김지욱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전문위원은 이렇게 설명한다.

“이화림은 사회주의자였다. 1935년부터는 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등 사회주의 계열 단체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1944년 이후에는 의사(醫士)로 중공군 측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1952년 한국전쟁 와중에는 북한으로 건너갔고 이후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 평생을 살았다. 1992년 중국과의 수교가 정식으로 이뤄지

면서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나서야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다.”

이화림이 사회주의자였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사회주의자이기 이전에 조국을 너무나 사랑해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독립운동가였다.

1905년 평양에서 태어난 그는 1919년 겨우 15살의 나이에 3·1운동에 참여했다. 학교의 리더로 다른 학생들을 3·1운동으로 이끌었으며, 이후 일본 경찰의 끊임없는 감시를 받으면서도 항일지하운동에 참여했다. 1930년 중국 상해로 망명한 것도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함이었다.

1931년 27살의 이화림은 ‘의열 투쟁’에 뜻을 품고 김구를 찾았다. 그의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있었다. 또 다른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인 김두봉(1889~1960)이 써준 추천사였다. 김구는 김두봉을 악히 알고 있었다. 자신과 사상은 다르지만 독립운동에 헌신적인 인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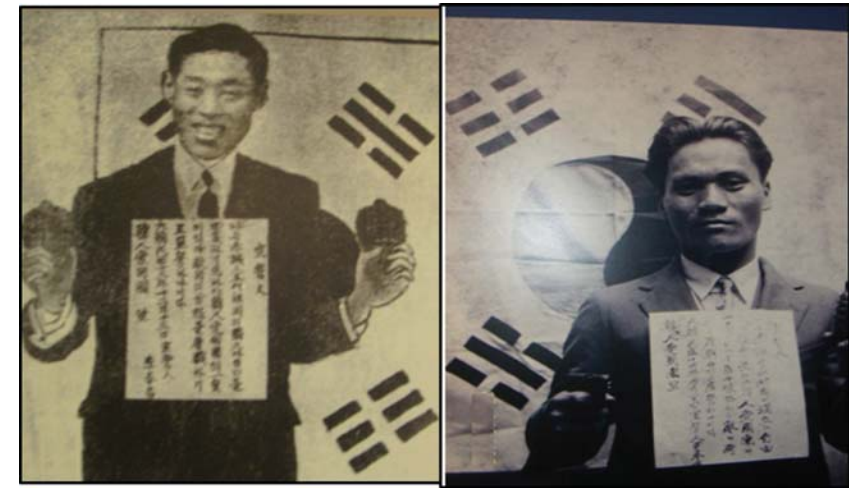
다만 김구가 이화림을 순순히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 여성인데다가 사상도 다른 그를 김구는 탐탁치 않아 했다. 하지만 이화림의 짧게 자른 머리와 강렬한 눈빛에 김구도 그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화림은 이봉창과 윤봉길의 거사를 돕게 됐다.

강영심 전 이화여대 교수는 이화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혁명 이론가도, 민족해방운동의 핵심 인물도 아니었다. 평양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이름 없는 학교



한민애국단 시절 김구(가운데)와 이화림(왼쪽).



거사를 앞두고 태극기 앞에서 선서를 하는 이봉창(왼쪽)과 윤봉길(오른쪽)

에서 단기간 교육받은 게 학력의 전부인 여성이었다. 그러나 어떤 남자 못지 않은 나라 사랑의 마음을 조선 혁명 전선에서 불태운 열성적인 여성이었다.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고

이화림은 누구... 독립운동 위해 이혼도 불사한 투사



1938년경 중국 중경에서 활동하던 이화림의 모습.



말년의 이화림.

1932년 4월29일 중국 상해 흥커우공원에서 윤봉길이 폭탄을 던진 뒤 일제는 더 집요하게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였다. 김구가 조직하고 윤봉길이 속했던 한민애국단도 사실상 해체됐다. 거사(巨事)를 함께했던 이화림(1906~1999)도 일제의 집요한 추적을 따돌리려 그해 여름 곧바로 광저우로 넘어갔다. 독립운동에 힘을

보낼 방법을 찾던 이화림은 간호화를 배우기로 하고 중산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한다. 의열 투쟁과 또 다른 삶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그곳에서 이화림은 결혼했다. 남편은 같은 대학 유학생 김창국이였다. 아들도 낳았다.

1935년 늦가을, 항일무력독립운동 단체 조선의열단 출신 윤세주(1900~1942)가 광저우에서 조선민족혁명당 당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미 마음을 돌린 이화림을 말릴 수 없었다. 그는 이혼했고 아이마저 남편에게 맡기고 조선민족혁명당을 따라 난징으로 떠났다.

실제로 이화림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국 독립을

열망했던 사람이였다.

1930년, 평양에 살던 이화림은 중국 상해로 망명했다. 이유는 단 하나. 독립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백범(白凡) 김구를 만나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화림은 김구를 만나 독립운동을 하려고 무작정을 국경을 넘었다. 1919년 15살의 나이에 친구들을 이끌고 3·1운동에 합류해 만세를 불렀던 그에게 일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김구는 이화림이 여성이라는 짐게다가 사회주의자라는 점이 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독립을 향한 그의 열망을 보고 한민애국단에 합류하는 걸 허락했다.

이화림은 한민애국단의 핵심 3인방 중 한 명이었다.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봉창의 1932년 1월 일본 도쿄 사쿠라다문(櫻田門) 투탄의 조력자 역할을 했던 게 이화림이었다.

1932년 4월 윤봉길의 상해 흥커우공원 투탄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것도 이화림이었다. 그는 윤봉길과 함께 공원을 정찰하고 잠입을 도왔다.

난징으로 간 1936년부터 1945년 해방이 있기까지 약 10년 간 이화림의 삶은 오로지 독립운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렇게 그는 조국을 위해 중국 전역을 떠돌았다. 난징에서 이화림은 조선민족혁명당 부녀국 의료보건사업 등을 맡았고, 김원봉의 부인 임철애(본명 박차정)와 함께 선전 활동을 전개했다.

난징대학살 등 일본의 중국 내륙 침략이 노골화하자 1938년 이화림은 이번엔 충칭을 거쳐 우한으로 이동했다. 같은 해 10월 우한에서는 조선의용대가 창설됐다. 조선의용대는 좌파 연합인 조선민족전선 연맹 산하의 무장 대대로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결성된 한인 군사조직이었다.

이화림은 조선의용대 부녀대 부대장을 맡았다. 대장은 임철애였다. 이화림은 이후 해방을 맞을 때까지 항일 운동을 이어갔다.

이렇게 젊은 시절을 모두 독립운동에 바친 이화림이 여지껏 훈장 하나 받지 못한 건 역시 해방 이후 활동 때문이었다.

사회주의자였던 이화림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인민해방군의 지시로 조선인민군 제6군단 위생소 소장으로 복무했다. 의료 복무 중 미군 폭격에 부상을 입은 그는 요양성 심양으로 복귀한 이후 다시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문화대혁명 때 반혁명분자로 몰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초를 겪기도 했다. 그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 복귀 이후 대련으로 옮겨 요양했다. 대련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다가 1999년 2월10일 세상을 떠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가짜뉴스